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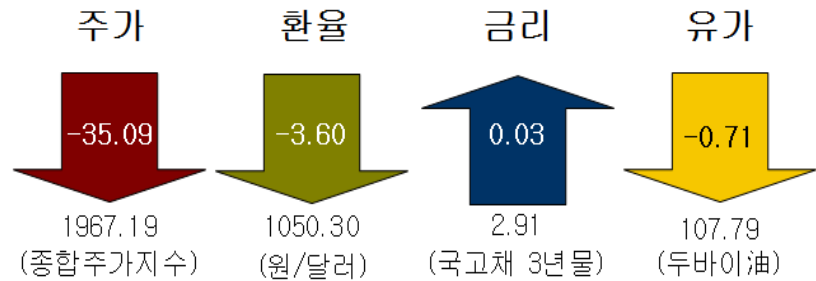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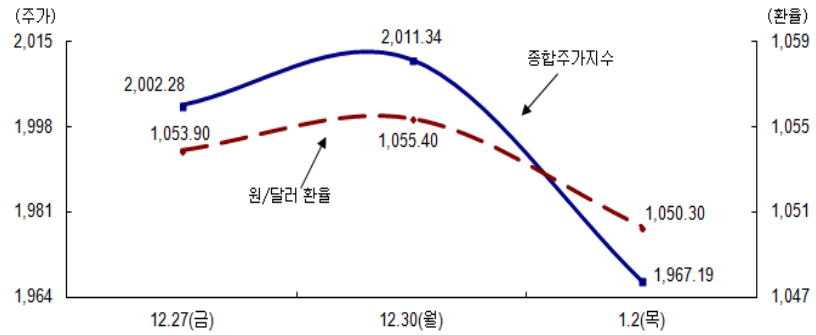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 ① 중성장시대로의 진입
- ② 스마트 소비의 확산
- ③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
- ④ 디레버리징 필요성 증대
- ⑤ 퍼플칼라의 확산
- ⑥ 제조업 한류의 개막
- ⑦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
- ⑧ ICT융합산업의 재도약
- ⑨ 위로가 필요한 사회
- ⑩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27~1.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2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이 준 협 연구위원 외 9인 (010-6728-9516, 2072-6219, socduk1@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 2014년 국내경제는 아래와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	트렌드 내용
거시경제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성장시대(The Age of Moderate Growth)로의 진입</li> <li>- 스마트 소비의 확산</li> <li>-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Biflation)</li> <li>-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필요성 증대</li> <li>- 퍼플칼라(Purple Collar)의 확산</li> </ul>
산업·경영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한류의 개막</li> <li>-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li> <li>- ICT융합산업의 재도약</li> </ul>
사회·남북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로가 필요한 사회</li> <li>-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li> </ul>

#### ■ 거시경제

① **중성장시대로의 진입** :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를 벗어나지만, 고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는 중성장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중성장시대의 특징으로는 제조업·수출에서 내수·서비스업으로의 중심 이동, 가계소비의 더딘 회복, 기업의 투자여력 미흡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고령사회 진입과 복지예산 확대, 성장률 미흡 등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커질 것이다.

② **스마트 소비의 확산** :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가치를 추구하는 스마트 소비가 확산되면서, 실질소득이 증가해도 실질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고령화 심화, 고용 안정성 저하, 주거비 상승 등은 현재의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절약적인 소비 형태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소비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다.

③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 : 주택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초과공급 상태인 수도권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핵가족화 등으로 대형주택 약세, 중소형주택 강세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④ **디레버리징 필요성 증대** : 가계부채와 공공부채가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채무부담 임계치에 근접하면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줄여야 한다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2013년 말에 1천조원을 돌파하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채 또한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면서 2014년에 1천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공기업은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⑤ **퍼플칼라의 확산**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포함한 유연근로시스템이 확대되면서 퍼플칼라(purple collar), 즉 일(파랑)과 가정(빨강)을 병행하는 근로자가 증가할 것이다.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되면서 여성의 시간선택제 제일자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붐세대에서도 퍼플칼라가 확산될 것이다.

## ■ 산업·경영

⑥ **제조업 한류의 개막** :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품질경쟁력과 브랜드경쟁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문화 한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한국 제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문화 한류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의 수출이 약진할 것이며, 신규 시장 개척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 : 서비스산업이 정부지원과 업계의 노력 속에서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문들이 등장할 것이다. 문화 및 오락, 의료, 교육, 사업서비스 등에서 명품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며, 특히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의료관광은 세계정상급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다.

⑧ **ICT융합산업의 재도약** : 우리나라의 ICT산업은 선진국 추격형 성장경로를 뛰어넘어 세계시장 선도형 ICT융합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제품, 서비스 및 산업 차원에서 ICT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사회·남북

⑨ **위로가 필요한 사회** : 고용·주거·노후 불안이 상시화되면서 2014년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위안과 안식이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불안감을 달래주는 힐링·멘토·명상·종교와 같은 '위로 산업'이 발달하고 가족·공동체적 가치가 중시될 것이다. 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한 낙오자들이 반기를 들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 혜택을 줄 형편이 아닌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고 위안감을 줄 수 있는 묘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⑩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 : 남북경협은 도입기의 1.0 시대와 활성화·조정기의 2.0 시대를 지나 제도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기인 3.0 시대로 진입을 모색할 것이다. 남북경협 3.0 시대에는 상생의 경험 시스템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을 위한 여건 조성,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한국경제 신성장 동력 발굴 등으로 남북경협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I.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선정

- 2014년도에 예상되는 국내 트렌드를 거시경제, 산업경영, 사회 및 남북관계 분야로 세분하여 10가지로 정리
  - 2014년 거시경제 분야에서 예상되는 트렌드로 중성장시대(The Age of Moderate Growth)로의 진입, 스마트 소비의 확산,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Biflation),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필요성 증대, 퍼플칼라(Purple Collar)의 확산 등 5가지를 선정
  - 산업·경영 분야에서는 제조업 한류의 개막,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 ICT융합산업의 재도약 등 3가지를 트렌드로 제시
  - 사회·남북 분야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사회,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 등 2가지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

분야	트렌드 내용
거시경제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성장시대(The Age of Moderate Growth)로의 진입</li> <li>- 스마트 소비의 확산</li> <li>-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Biflation)</li> <li>-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필요성 증대</li> <li>- 퍼플칼라(Purple Collar)의 확산</li> </ul>
산업·경영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한류의 개막</li> <li>-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li> <li>- ICT융합산업의 재도약(Second Jump)</li> </ul>
사회·남북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로가 필요한 사회</li> <li>-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li> </ul>

## 1. 중성장 시대(the Age of Moderate Growth)로의 진입

○ (의미)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를 벗어나지만, 고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는 중성장시대 진입

- 국내 경제는 평균 성장률이 2%에 불과한 저성장기를 벗어나지만 성장수준은 과거 고성장기보다 낮은 3%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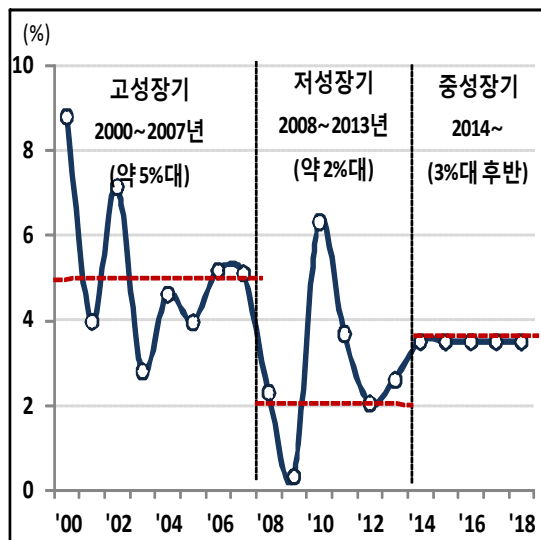
○ (내용) 중성장 시대는 성장 중심축 이동, 소비 회복 미진, 투자여력 미흡, 복지 확대에 세부담 확대 등이 주요 특징

- 성장 중심축 이동 : 국내 경제는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점차 이동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GDP의 약 57.5%, 고용은 전체취업자중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며 산업의 무게중심이 점차 서비스업 부문으로 이동

·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며 내수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임<sup>1)</sup>

< 국내 경제의 장기 성장 추이와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IMF.

주 : 2013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2014년 이후는 IMF 전망치임.

< 중성장기 국내 경제의 특징 >

	내 용
성장 중심축 이동	수출·제조업 중심에서 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
소비 회복 미진	일자리 증가로 가계의 소비여력은 회복되지만 회복 속도는 더딤
투자여력 미흡	투자 부문에서 기업들의 투자여력 미흡
세부담 확대	복지예산 확대, 성장 둔화 등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 증가

1) 한국은행의 2014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수의 성장기여율은 2012년 35.0%, 2013년 42.9%, 2014년 47.4%로 지속적으로 상승.

- **소비 회복 미진** : 중성장기에는 일자리 확대, 실질소득 증가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회복되지만 일자리 증가가 서비스업 및 저부가가치 산업 등에 주로 늘어 가계의 소비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유연형 일자리 및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어 가계의 소비 여력이 회복
  - 다만 시간제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기업 및 저숙련 취업애로 계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 소비 회복은 제한적
  
- **투자여력 미흡** : 설비 및 건설 투자는 위기 기간인 저성장기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회복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 역시 투자여력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움
  - 투자는 대내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더딘 소비 회복, 기업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움
  
- **복지 확대로 세 부담 확대** : 고령화 사회 진입, 복지예산 확대, 성장률 미흡 등으로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이 증가
  - 국내 복지 관련 예산은 2013년 97.4조원에서 연평균 7.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127.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 반면 국세수입 증가는 빠르게 늘기 어려워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납세자들의 조세부담 증가가 불가피
  
- (시사점)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 자본·노동 확충,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성장잠재력의 토대인 자본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로의 전환,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김천구 선임연구원(02-2072-6211)

2) 기획재정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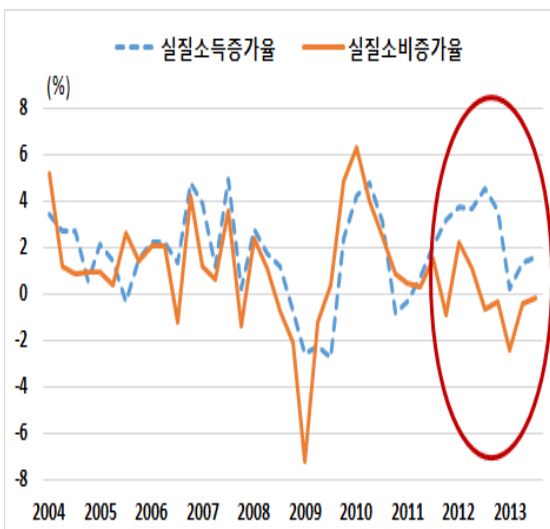
## 2. 스마트 소비의 확산

- (의미)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 가치를 추구하려는 스마트 소비의 확산으로 절약적인 소비가 이루어져 실질 소득이 증가해도 실질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 해외 온라인 직접구매 증가, 최저가 정보를 활용한 알뜰 소비 확산 등으로 절약적인 소비행태가 나타나 실질 소득은 증가해도 실질 소비는 감소세
    - 2012년 3/4분기부터 2013년 3/4분기까지 실질 소득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실질 소비는 동기간 감소세를 지속하며 절약 소비 확산
    - 2011년 1/4분기 평균소비성향이 78%를 나타냈으나 2013년 3/4분기 평균소비성향이 72%로 크게 하락하며 가계의 소득 증가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내용) 고령화 심화, 고용 안정성 저하, 주거비 상승 등은 현재의 소비증가 보다는 미래를 위한 절약적인 소비 행태를 유도하여 스마트 소비를 더욱 확산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 회복은 제한적일 것임
  - 고령화가 심화되어 소비성향이 저하되며 절약적인 소비 행태 확대
    -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은퇴연령은 낮아지면서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소득은 낮아져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절약적인 소비 성향이 심화됨
    - 고령 사회에 대한 사회 안전망 미흡으로 고령화 심화는 절약적인 소비 행태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
  
  -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던 신규 취업자 증가세가 최근 약화되고 이직률도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 안정성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절약적인 소비 행태 확산
    - 고용 안정성 저하는 미래 기대 소득에 대한 안정성 악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서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 동기가 더 높아져 절약적인 소비 행태 확산



-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전세임차료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최근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며 가계는 상승하는 주거비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킴
- 지속적인 주거비용 상승은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도 상승하는 주거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절약적인 소비 행태를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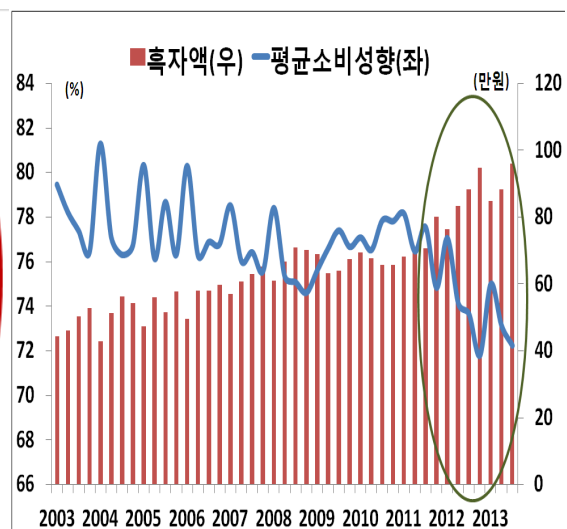
< 실질소득 및 실질소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 전국, 2인 이상 가구, 신분류 기준, 분기별.

<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및 흑자액 >



자료 : 통계청.

- 주 : 1. 전국 2인 이상가구, 신분류 명목기준, 분별
- 2. 평균소비성향=100\*(소비지출/가처분소득).
-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 (시사점) 일자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 안정망을 확대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주거비 안정화를 통해 소비활성화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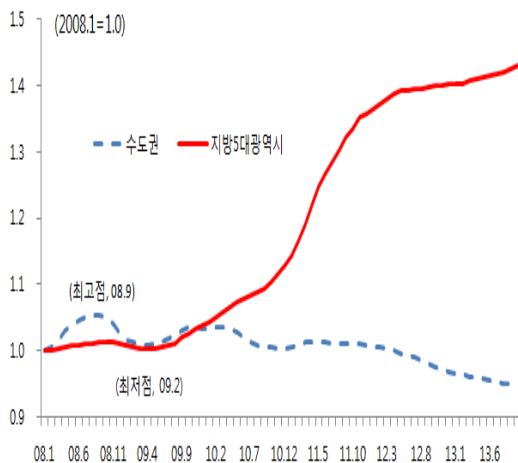
-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중산층을 재건하여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 제고, 고령 사회 맞춤형 복지 시스템 확립, 주거비 안정화를 통해 소비 확대를 유도

김민정 연구위원(02-2072-6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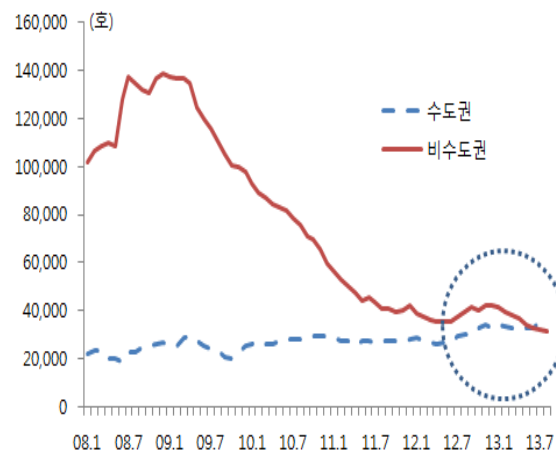
### 3.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Biflation)

- (의미)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 지역별·규모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국내 주택가격이 지역별로 수도권 하락, 비수도권 상승 추세가, 규모별로 대형 하락, 중소형 상승 추세가 분명해지고 있음
  - 바이플레이션(biflation)이란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현상을 의미<sup>3)</sup>
- (내용)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지역별·규모별 엇갈린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
  - (지역별)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초과공급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과는 달리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은 중대형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은 금융위기 직전 최고점에서는 약 10% 하락, 반면 비수도권은 금융위기 직전 최저점에서 약 40% 상승

< 지역별 아파트매매지수 추이 >



< 지역별 미분양아파트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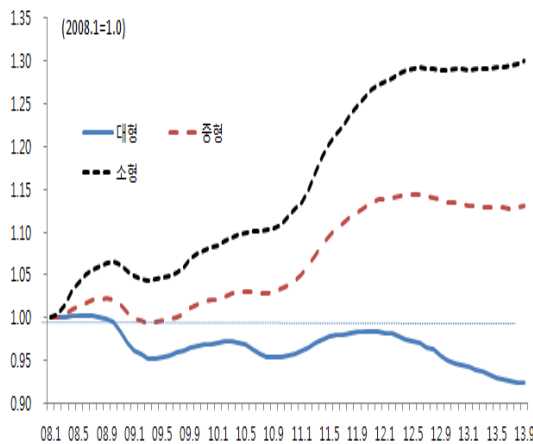


자료 : KB국민은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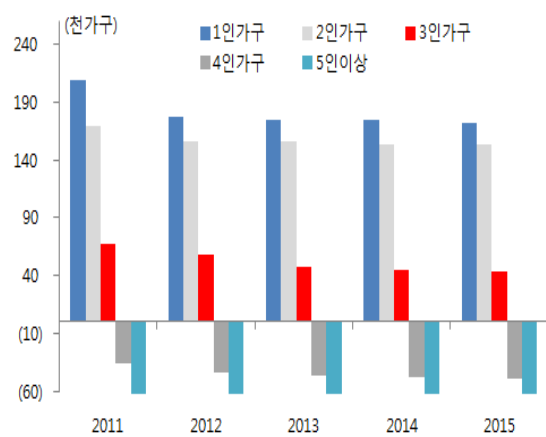
3) 글로벌 경제에서 신흥국 인플레이션과 선진국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한 지역 내에서 상품가격 상승과 자산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Phoenix 투자그룹의 금융분석가인 '오스본 브라운'이 2003년 최초 도입.

- (규모별) 전국아파트매매지수는 가구의 다운사이징 현상 등으로 중소형 강세, 대형 약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핵가족화, 고령화, 이혼율 급증 등으로 가구의 다운사이징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중소형(1~3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대형(4인 이상) 가구가 감소
  - 전국 아파트매매지수는 200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소형은 약 30%, 중형은 약 13% 상승한 반면 대형은 약 8% 하락

< 규모별 아파트매매지수 추이 >



< 가구 크기별 증감 추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가구증감), KB국민은행(아파트매매지수)를 사용해 재구성.  
 주 : 소형은 전용면적 62.8m<sup>2</sup> 이하, 중형은 62.8m<sup>2</sup> ~ 96.9m<sup>2</sup>, 대형은 96.9m<sup>2</sup> 이상.

○ (시사점)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에서의 주택정책 방향도 지역별·규모별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 지역별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초과공급 해소를 통한 연착륙 정책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버블化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
  - 수도권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된 가격에 대형 미분양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
  -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수도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 규모별로는 향후 중소형주택의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재연에 대비
  - 2013년부터의 공급축소 정책을 중소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며,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검토
  - 대형주택을 다수의 중소형 가구의 주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 모색

박덕배 전문연구위원(02-2072-6216)

#### 4.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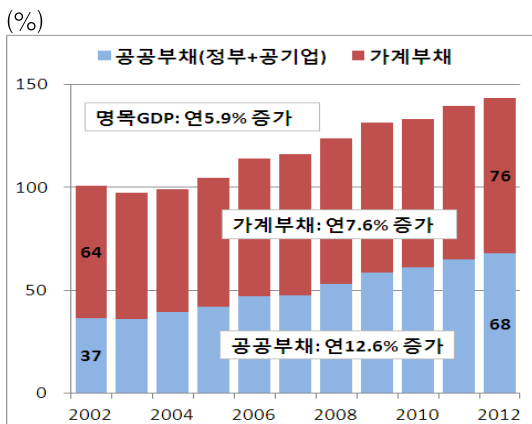
○ (의미)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한국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줄여야 한다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가계부채 증가는 원리금상환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채의 증가는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공공부채가 증가할수록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 (내용) 한국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각각 1천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채무부담 임계치에 근접하면서 빚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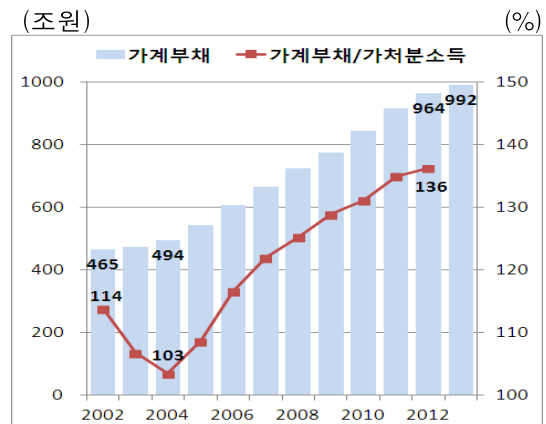
- 2012년 가계부채는 964조원(명목GDP 대비 75.7%)으로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채무부담 임계치 75%를 넘어섰으며, 2013년 말에는 1천조원에 달할 전망
- 2012년 공공부채는 864조원(명목GDP 대비 67.9%)로 세계경제포럼의 임계치 90%보다는 적으나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며, 2013년 9월말 906.3조원에서 2014년에는 1천조원을 돌파할 전망
- 가계부채 : 빚을 통한 주택구입과 사업자금, 생계비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급증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04년 103%에서 2012년 136%로 상승
  - 특히 금융부채가 있는 저소득층의 월원리금상환액이 73.9만원에 달하는 반면 월가처분소득이 72.8만원에 불과해 채무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 명목GDP 대비 부채규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 가계신용).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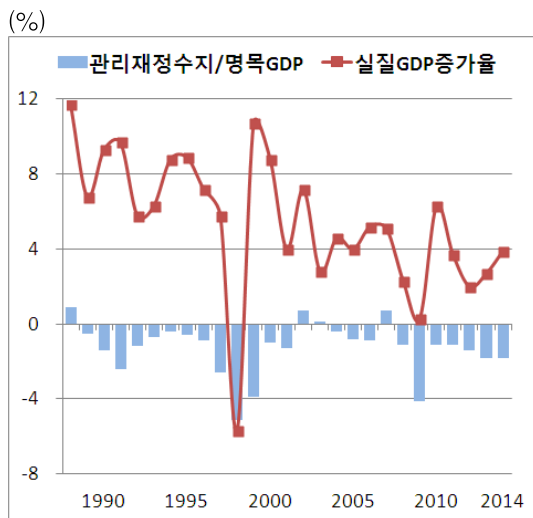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가계신용, 국민계정).

주 : 2013년은 3분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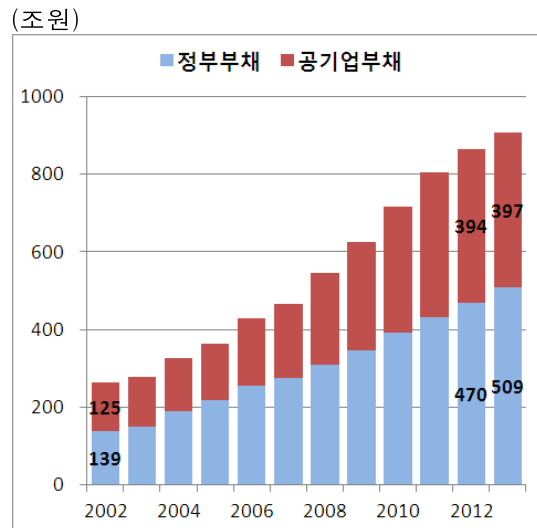
- **공공부채** : 공공부문(정부 및 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 등으로 공공부채 급증
  - 정부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988년 이후 26번 중 22번 재정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
  - 이에 따라 정부부채가 2002~2012년에 年13.0% 증가(138.6조→469.6조원)하여 명목GDP증가율 5.9%(720.5조→1,272.5조원)를 2배 이상 크게 상회
  - 공기업 부채 또한 2002~2012년에 年12.2% 증가(124.7조→397.3조원)
  - 향후에도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 성장잠재력 약화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적자 및 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재정수지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주 : 2013년부터는 정부전망치.

< 공공부채(정부+공기업) 추이 >



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  
주 : 2013년은 3분기말 기준.

- (시사점) 임계치에 다다른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가계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경제활동의 중심에 두고 빚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임
  - **가계부채** : 수익성 낮은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이고, ‘거치식·원리금일시상환·변동금리’에서 ‘비거치식·원리금분할상환·변동금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수지 개선을 위해 수입·지출흐름 재조정
  - **공공부채** : 수익성 낮은 공기업·정부의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공공부채를 줄이고 만성적인 재정적자 관행을 타파. 세금·복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 제시 및 국민적 합의 도출, 재정준칙 강화, 증세를 포함한 세수확대방안 모색, 공기업 부채감축 및 통제 강화방안 등을 추진

이준협 연구위원(02-2072-6219)

## 5. 퍼플칼라(Purple Collar)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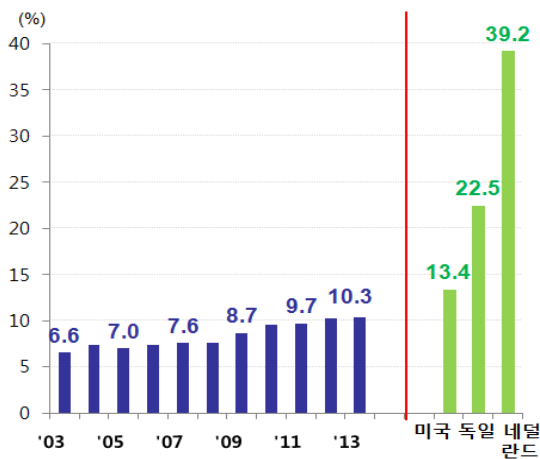
### ○ (의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스템의 확대로 퍼플칼라 확산

- 퍼플칼라(purple collar)는 탄력적인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하여, 가정과 일 혹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노동자를 의미
  - 보라색은 빨강색(여성, 가정)과 파랑색(남성, 일)이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섞일 경우 나타나는 색으로,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장소를 조정해 일하는 탄력근로자를 의미)
  - 퍼플칼라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되, 보수만 줄어든 뿐 직업의 안정성 및 커리어는 풀타임으로 일할 때와 똑같이 유지됨

### ○ (내용) 시간제근로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OECD 주요국 수준에 못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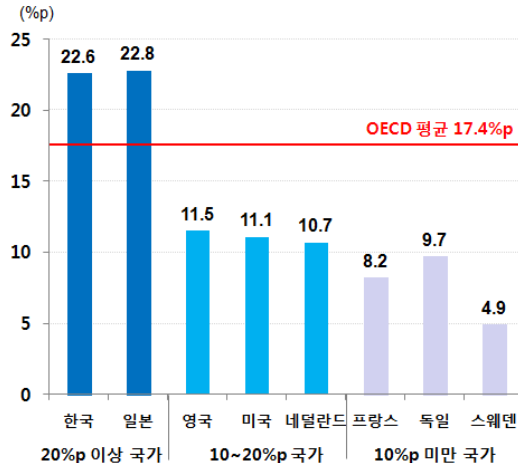
- 한국의 시간제근로자는 2003년 93만명에서 2013년 18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6.6%에서 10.3%로 증가
  - 그러나, 네덜란드(39.2%), 독일(22.5%), 미국(13.4%) 등의 OECD주요국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시간제근로자 비중 및 주요국 현황 >



자료 : 통계청, OECD.  
주 : 네덜란드, 독일, 미국은 2012년 기준.

< OECD 남녀 고용률 격차 현황 >



자료 : OECD(2012).

- 4) 화이트칼라(white collar)와 블루칼라(blue collar)는 작업장의 형태에 따른 분류이고, 퍼플칼라(purple collar)는 근무형태에 따른 분류. 협의의 퍼플칼라는 학업 또는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서 36시간 미만으로 시간제근로자 형태로 일하는 취업자를 뜻함.
- 5) 한국의 취업자는 2,529만명으로, 1,824만명의 임금근로자와 705만명의 자영업자로 구분되며, 임금근로자는 다시 1,230만명의 정규직 근로자와 595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됨.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시 343만명의 한시적근로자, 188만명의 시간제근로자, 222만명의 비전형근로자로 분류됨.

- 한국의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OECD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성의 고용률 증대를 위해 시간제일자리 등의 유연근로시스템이 확대될 필요
  - 한국의 경우, 남성의 고용률은 80.5%로 OECD국 중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57.9%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한국이 22.6%p로 독일(9.7%p), 네덜란드(10.7%p), 미국(11.1%p) 등의 주요국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남
  - 남성-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G7 평균이 13.4%p, OECD 평균이 17.4%p 수준
  
- 주요국 대비 미미한 수준이나,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학업 또는 가사를 병행하면서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확대되고 있음
  - 2007~2013년 동안 육아·가사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36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취업자 수는 23.5만명에서 32.7만명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36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취업자 수는 19.3만명에서 23.2만명으로 확대
  - 2014년에도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층, 가사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 은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붐세대 등 취업애로계층을 고용시장에 유입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임
  
- (시사점) 한국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퍼플칼라가 확산되어 왔으나, 아직 주요 선진국 대비 미비한 상황으로 유연근로시스템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필요
  - 여성의 육아·가사에 따른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고용 확충
    - 개인의 자발적 수요(학업 및 육아)에 부합하고, 임금, 복리후생, 보험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균등한 대우를 받는 양질의 시간제일자리가 마련될 필요
  -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후 실업자'가 아닌 '은퇴 후 시간제근로자'로 전향되어 제2의 인생에 대비한 삶의 안정성 확보를 마련할 필요
    -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후 재취업에 실패하고, 선부른 창업에 실패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김광석 선임연구원(02-2072-6215)

## 6. 제조업 한류의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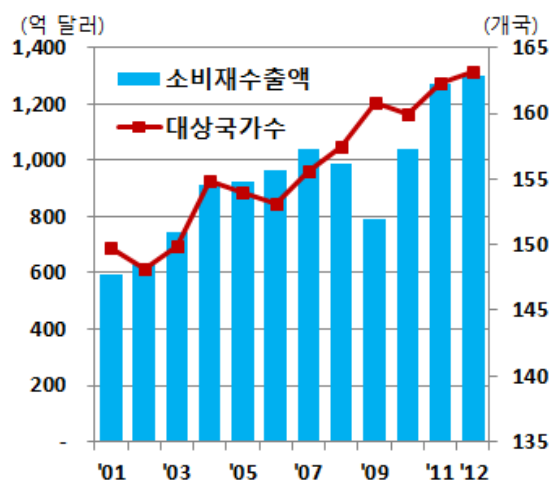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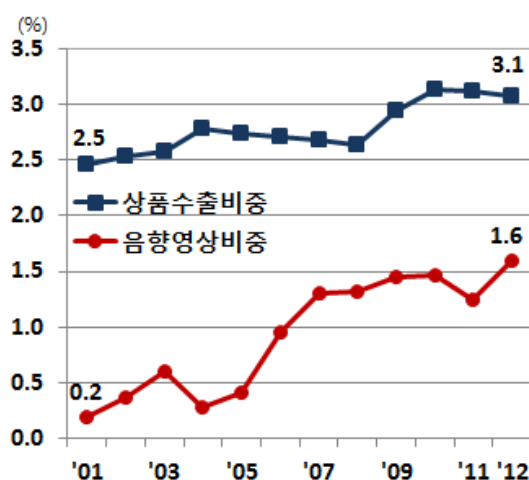
○ (의미) 한국의 제조업이 문화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세계 수출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시기가 도래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업 제품이 품질, 브랜드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동시에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제조업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이는 한국 제조업이 가격경쟁력 우위에서 품질·브랜드 경쟁력 우위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
- 또한 2000년 중반 이후 본격화된 문화 한류 확산의 영향으로 우리 제품의 선호도와 브랜드 인지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

○ (내용)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 수출의 증대와 소비재 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 기대

- 세계 시장 수출 증가 : 한국의 제품 수출 규모와 한류의 확산은 2014년 이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제품 수출 비중은 2001년 2.5%에서 2012년 3.1%로 증가하였고, 한류의 확산을 대변하는 음향영상 수출 비중 역시 0.2%에서 1.6%로 크게 증가

< 한국 상품 및 음향영상 수출의 세계 시장 비중 > < 소비재의 수출액과 대상국가수 >



자료 : 한국무역협회, International Trade Centre. 자료 : UN comtrade.

주 : 소비재는 가정용 식음료 제품 및 반제품, 승객용 자동차,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내구성 및 비내구성 소비재가 포함.



- 소비재의 수출 증가 : 한류의 확산과 관련성이 높은 소비재 수출 증가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소비재 수출액은 2001년 596억 달러에서 2012년 1,301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
  - 이 중에서 승객용 자동차, 가정용 식음료 제품 및 반제품, 비내구성 소비재의 2001~2012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32.0%, 21.3%, 19.8%를 기록하여 소비재 수출 증가에 주도적 역할
  
- 소비재 수출 국가 확대 : 소비재의 수출 대상 국가의 지속적인 확대 기조가 2014년에도 유지 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의 소비재별 평균 수출 대상 국가는 2001년 149.7개국에서 2012년 163.1개국으로 증가했고, 특히 가정용 식음료 제품의 수출 대상국이 2001년 62개국에서 2012년 98개국으로 크게 확대
  - 이런 현상은 한류문화가 1990년대 태동기를 거쳐 확산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두드러짐
  
- 기업브랜드 가치 상승 : 국내 소비재 제조업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이 예상
  - Interbrand의 세계 브랜드 순위에서 2000년에는 43위에 삼성전자만 포함된 반면 2013년에는 삼성전자(8위), 현대자동차(43위), 기아자동차(83위)가 포함되는 등 주력 소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
  - 2014년에 한류의 인기가 지속되고 세계 시장 수출이 증대되면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 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문화 한류의 확산이 제조업의 한류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조업 제품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제조업 한류를 확대·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제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품질 향상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신규 해외시장 진출과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제고시키는데 역량을 집중

오준범 연구원(02-2072-6247)

## 7.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

- (의미) 서비스산업이 정부지원과 업계의 노력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문 또한 등장하기 시작
  -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약 70%, 총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199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의 주된 역할을 담당
    - 서비스산업은 재화를 생산하는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로 2012년 전체의 57.4%에 해당하는 570조 7,600억 원의 부가가치 생산
  - 서비스업은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으로 변신
    - 서비스업은 2002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0%씩 성장한 끝에 2012년 14년 만에 26억 8천만 달러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
- (내용) 문화 및 오락, 의료, 교육,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이 몇몇 부문을 통해 구체화
  - 서비스업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 서비스업 생산이 문화오락, 의료복지, 교육, 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난 10년 동안 주요부문들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시현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증대 요구에 부응한 의료복지서비스가 82.7% 증가

< 한국 주요 서비스업 생산액 >

(조 원)

	2002	2007	2012
문화오락 서비스	10.0	11.8	13.3
의료복지 서비스	23.8	32.9	43.5
교육 서비스	42.1	50.0	52.8
사업 서비스	34.0	41.8	46.2

< 한국 주요 서비스업 수출액 >

(억 달러)

	2002	2007	2012
문화오락 서비스	1.8	4.5	12.5
사업 서비스	60.1	144.2	228.8
관광 서비스	42.1	50.0	52.8

자료 : 한국은행.

주 : 관광산업의 생산은 음식, 숙박, 문화, 오락,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의 생산으로 분배.

- **서비스업 수출 증가 가속화:** 한국의 서비스업 수출이 문화오락, 사업 그리고 관광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전 세계적인 한류확산에 힘입은 문화오락 서비스의 수출은 2002년 1.8억 달러에서 2012년 12.5억 달러로 6.9배 이상 증가
  - 새롭게 등장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사업서비스는 3.8배 이상 그리고 관광서비스는 2.3배 이상 증가해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을 갖추나감을 보여줌
  
-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서비스부문 가시화:** 의료관광, 영화예술, 정보보호 등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부문으로 등장
  -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의료관광은 한국 의료산업의 세계 정상급의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그 규모가 2009년 565억 원(6만 명)에서 2011년 1,822억 원(12만 명)규모로 크게 성장
  - 국내시장에서 한국영화가 할리우드 영화를 흥행에서 압도하고 있는 것을 넘어 설국열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제작 능력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국인 영화 제작자에 대한 수요 증가
  -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확대,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 개발 및 보안 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을 정부가 추진함에 따라 정보보호 산업을 위한 시장과 인력 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시장 주도
  
- (시사점) 서비스업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 불확실성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함
  - 서비스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의 실행은 요원
  - 서비스산업이 국내시장만을 목표로 했을 때 만들어졌던 각종 규제가 세계시장의 시각에서는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비하는 것이 필요

예상한 연구위원(02-2072-6232)

## 8. ICT융합산업의 재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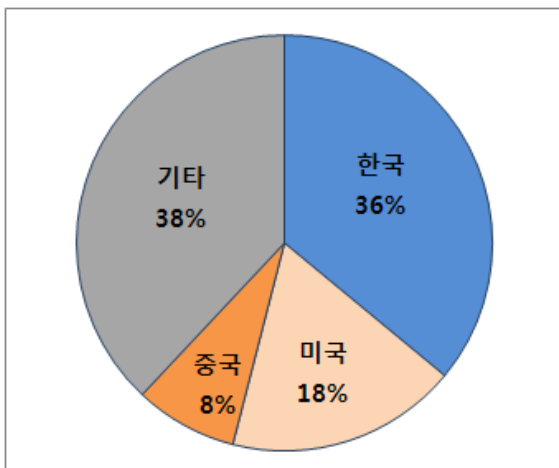
○ (의미) 우리나라의 ICT산업은 선진국 추격형 성장경로를 뛰어넘어 세계시장 선도형 ICT융합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

-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ICT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
  - ICT융합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
  - 국내 ICT융합산업은 스마트홈/빌딩/시티/교통,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유헬스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
  -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한국 점유율은 36%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월별 ICT 수출액은 2013년 10월 160억달러를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

○ (내용) 제품, 서비스 및 산업 차원에서 ICT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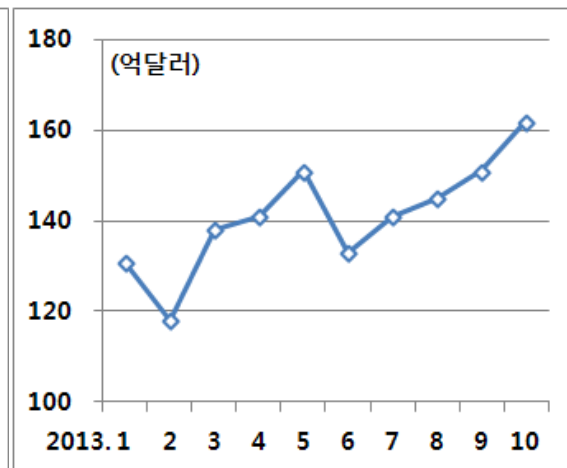
- (ICT융합 제품의 확산) 기존 제품에 ICT 기술이 접목되어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재탄생되는 혁신 트렌드가 확산
  - 스마트 시계, 구글 글래스 등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실용화 단계에 진입

<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



자료 : Gartner.  
주 : 2013년 1/4분기 기준.

< 월별 ICT 수출 추이(2013년)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 운영체제(OS)가 탑재되고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
- (ICT융합 서비스의 확대) 전통적인 서비스업 역시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교육 부문은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영상 및 시뮬레이션 학습자료가 광범위하게 활용될 전망
  - 스마트 의료기기와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
  - 상거래 및 물류 서비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가 차지하는 역할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결제(전자지갑) 등 저비용 고효율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
- (산업구조 재편) ICT융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산업 간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고 가치사슬 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
  - 방송, 통신, 미디어가 인터넷 기반으로 융합되면서 OTT<sup>6)</sup>, 인터넷 영상통화, 전자책 서비스 등이 빠르게 성장
  - 게임, 영화, 음악 등 문화·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형태의 변화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발생
- (시사점)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T융합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사업 초기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내수 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
  -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여 법·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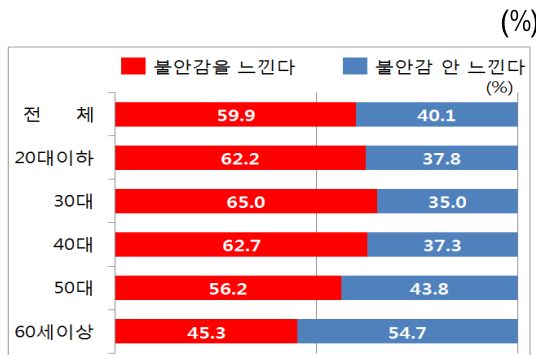
장우석 연구위원(02-2072-6237)

6) OTT(Over-the-top)는 원래 셋톱박스를 통한 방송이라는 의미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의미.

## 9. 위로가 필요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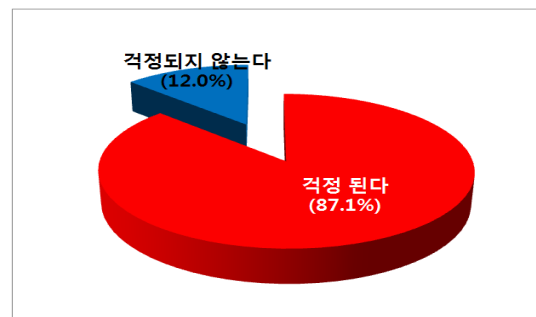
- (의미) 높은 이직률 등 고용 불안감,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고령화 사회의 노후 불안 등 불안이 일상화되고 상시화되면서 2014년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위안과 안식이 필요한 사회(위로사회)가 될 것임
  - (고용 불안) 2%대에 머물러 있던 이직률이 금융위기 이후 4~5%대로 급등하는 등 고용 안정성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고용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6명(5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주거 불안) 전세 가격 급등으로 집 얻기가 어려워지면서, '주택자금 등 결혼자금 마련'(68.0%)이 미혼남성의 결혼 기피 이유 1위가 됨
  - (노후 불안)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국민은 9.0%에 불과하고<sup>8)</sup>,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걱정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87.1%)임
- 불안감을 달래주는 '위로 산업'이 발달하고, 가족·공동체적 가치가 중시될 것이지만, 낙오자들의 저항이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변질 수도 있음
  - 불안감을 어루만져 주는 산업, 즉 힐링, 멘토, 명상, 상담, 종교 등과 관련된 '위로산업'이 발전할 것임
    - 느리게 사는 삶, 다운 시프트,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쪽으로 사회의 무게 중심이 이동될 것임
    - 전통적인 종교에서 안식을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기존 종교산업도 호황을 맞을 것이며, 불안 속에서도 실낱 같은 확실성을 찾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운세(점술)산업이 성행할 것임

< 고용 불안 >



자료 :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보고서.

< 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3).

7) 장후석. 2013. "결혼관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 육식녀". 「VIP Report」. 제537호. 현대경제연구원.

8)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 도박·경마와 같이 요행을 바라 황재를 노리는 사행성 오락산업도 커질 것임
- 불안이 장기화되면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나 연애에 소심하고 사회생활을 기피하는 ‘초식남’ 같은 부적응자 양산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음)
- 위로사회에는 가족적 가치(family value)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될 것임
  - 경제적 부양까지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믿고 의지할 최후의 보루는 가족이라는 인식이 커질 것임
  - 출산을 꺼리는 풍조도 한풀 꺾일 수 있고, 가족의 범위를 애써 넓히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즉 부부와 미혼 자녀 이외에 직계 존·비속과 방계의 친족 등을 포함하는 ‘확대가족’(extended family) 트렌드도 생겨날 수 있음
-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주의와 연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진행
  - 개인주의의 만연에 대한 저항감과 함께 과거의 공동체적 전통을 그리워하며, 동창회와 동호회, 반상회 참여를 통해서도 정을 나누려는 사람이 늘 것
  - 독신자들에게는 주거비 절약과 유대감 형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쉐어 하우스’(share house)가 인기 있는 주거 형태로 보편화될 것
- 다만 위로를 받지 못한 낙오자들이 반기를 들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직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노년층이 될 것임
  - 젊은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자신들을 보살핌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암울한 사회에서 기성 권위에 반기를 들며 출현했던 ‘성난 젊은이’(Angry Young Men)<sup>10)</sup>로 돌변할 수 있음
  - 고령층 또한 자신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전 세계에서든 유례 없는 ‘위대한 세대’였음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요구하는 ‘성난 노인’(Angry Old Men)으로 변모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추세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전망과 맞물리면서 현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시사점)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 혜택을 줄 형편이 아닌 정부로서는 고용, 주거, 노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고(anxiety management) 위안감을 줄 수 있는 묘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임

박태일 컨설팅본부 본부장(02-2072-6260)

9) 당원의 설문조사(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식남의 비율은 현재 3.1%로서 일본(18.4%)에 비해 1/6 수준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불안사회가 지속되는 경우 그 비율은 일본만큼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10) 195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전후세대(戰後世代), 특히 젊은 작가들을 지칭. 전후 기성세대의 위선적인 태도, 보수적 경향과 전쟁의 반인륜적 파괴와 절망에 대한 젊은이들의 저항과 반발을 작품화한 것이 특징이며, 오스본의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가 그 대표적인 작품임.

## 10.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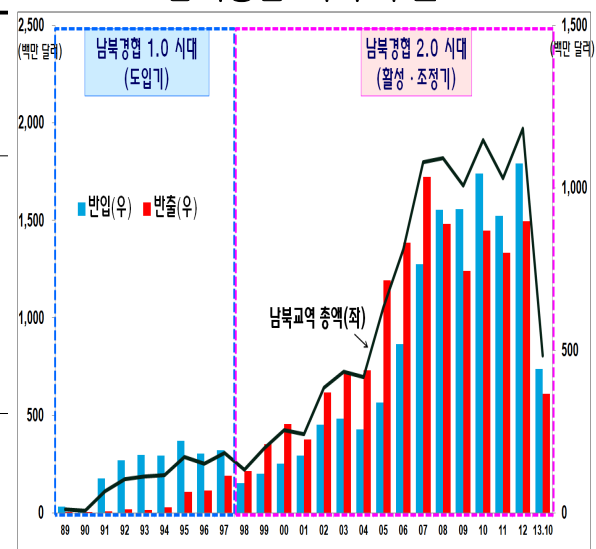
- (의미) 남북경협은 도입기의 1.0 시대와 활성화·조정기의 2.0 시대를 지나 제도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기인 3.0 시대로 진입을 모색
  - 남북경협 3.0 시대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구축을 위한 질적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
    -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영향으로 중단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탄탄한 제도화에 기반한 질적 변화를 도모
- (내용) 남북경협 3.0 시대에는 상생의 경협 시스템 구축,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방면의 남북경협 추진, 남북경협의 위상 제고 등이 기대
  - 남북경협 1.0 시대 : 남북경협이 시작된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 도입기로, 단순교역과 위탁임가공 중심의 초보적 수준의 교류협력 추진
  - 남북경협 2.0 시대 : 1998년부터 2007년까지를 활성화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를 조정기로 구분, 이 시기 남북경협은 실험기로 규정할 수 있음
    - (활성기) 화해협력의 유연한 대북정책 원칙하에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와 초보적 수준의 정경분리 노력으로 양적 성장 도모
    - (조정기)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과 정경연계 정책 추진으로 남북관계 장기 경색과 교역 정체, 개성공단 사업만 유지

< 남북경협 3.0 시대 >

1.0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1989년~1997년(도입기)</li> <li>· 위탁가공 중심</li> <li>·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1년)</li> </ul>
2.0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1998~2013년(활성·조정기)</li> <li>· 활성화기(98~07년) : 1·2차 정상 회담, 금강산관광, 4대경협합의서, 개성공단 사업 등</li> <li>· 조정기(08~13년) : 남북관계 급랭</li> <li>· 개성공단 사업만 유지</li> </ul>
3.0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2014년 이후(도약기)</li> <li>· 상생의 경협 시스템 구축,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li> </ul>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남북경협 시기 구분 >



자료 : 통일부.  
주 : 2013년은 1~10월까지 실적임.



- 남북경협 3.0 시대 : 2014년부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구축 노력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여건 조성) 개성공단 1단계 조기 완공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 기존 경협 사업 복원으로 상호 신뢰 회복
  - 나아가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종합개발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경협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북한 경제 발전 방안 모색
  - (상생의 경협 시스템 구축) 남북은 어느 일방의 투자나 지원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닌 상생의 지속발전가능한 경협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화 추진
  - 4대경협합의서(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청산결제)의 시행세칙 마련, 개성공단·금강산 관련 법제 개선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구축 노력
  -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한·중·러·몽골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북한 참여 유도, 남·북·중·러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SOC 인프라 등 新 북방사업 추진 등
  - (한국경제 신성장 동력 발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및 SOC 투자, 인력 활용 등을 통해 자원 확보와 내수 진작 도모
- (시사점) 남북대화와 북핵 논의 진전을 위한 북한의 변화 유도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가시적인 협력 제안 필요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분리 적용 : 3자·4자·6자 등 다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방안 모색과 함께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와 분리하여 실리적 접근 필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동력 확보 :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전향적인 대북정책 추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의 기반 조성
  - 5.24 조치 해제와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상호 신뢰와 남북관계 복원 필요
-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으로 북한 변화 분위기 유도 : 경제개발구법 제정 및 전국 단위의 경제개발구 확대 등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과 변화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 확대 필요

이해정 연구위원(02-2072-6226)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3/4
미국	1.8	2.8	3.7	1.2	2.8	0.1	1.6	1.1	2.5	4.1
유로 지역	1.4	-0.6	-0.1	-0.2	-0.1	-0.6	-0.4	-0.2	0.3	0.1
일본	-0.6	1.9	4.8	-0.9	-3.6	1.0	2.0	4.3	3.8	1.9
중국	9.3	7.8	8.1	7.6	7.4	7.9	7.6	7.7	7.5	7.8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월 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1.85	2.46	2.62	3.03	2.99	0.00%p
	엔/달러	85.86	94.24	98.51	97.90	105.04	105.37	0.92¥
	달러/유로	1.3222	1.2815	1.3031	1.3493	1.3799	1.3768	0.0089\$
	다우존스지수(p)	12,938	14,579	14,910	15,130	16,577	16,441	-39p
	닛케이지수(p)	10,395	12,398	13,677	14,456	16,291	16,291	11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52	2.88	2.82	2.86	2.91	0.03%p
	원/달러(원)	1,070.6	1,111.1	1,142.0	1,074.7	1,055.4	1,050.3	-5.0원
	코스피지수(p)	1,997.1	2,004.9	1,863.3	1,997.0	2,011.3	1,967.2	-32.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월 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7.13	96.52	102.42	98.55	95.49	-4.08\$
	Dubai	107.99	107.07	100.38	103.58	107.88	107.79	-0.71\$
CRB선물지수	294.78	296.39	275.62	285.54	280.17	277.41	-5.50\$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3	2.6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3	2.0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2.5	3.7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8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397	695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2	399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7	6,123
	(증가율, %)	19.0	0.5	-3.1	-1.3	0.6	3.8	2.2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5	5,724
	(증가율, %)	23.3	2.3	-4.0	-0.9	-2.9	2.3	-0.3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3.2	3.3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